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배포일자 2022년 8월 25일(목) 총2매		
담당 부서	국제평화협력 담당관	담 당 자 • 아시아팀장 • 담당자	명창준 ☎440-3201 최혜원 ☎440-320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정복 시장, 베트남 하이퐁시장과 면담

- 하이퐁시장, 경제자유구역(IFEZ) 개발경험 및 투자 유치 성과에 큰 관심 -
- 한국어 교육수요를 위한 세종학당 추가설립 등 자매도시 간 교류 논의-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25일 오전 10시 시청 접견실에서, 응웬 반 퉁 베트남 하이퐁 시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인천시 경제자유구역(IFEZ)의 투자 성과와 개발경험에 대한 응웬 반 퉁 시장의 높은 관심으로 성립됐으며, 양 시장은 두 도시의 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응웬 반 퉁 하이퐁 시장은 한국 신규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하이퐁 대표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 중이다.

유정복 시장은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과 「인천·하이퐁 자매결연 2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방문하신 응웬 반 퉁 시장님을 진심으로 환영 한다”면서 “양 도시 간의 우호가 계속 돈독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과 하이퐁은 1997년 7월 25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인도적 의료 사업지원과 문화교류·투자·교역 등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해 왔으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경제·문화·공적 개발원조(ODA)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맺고 있다.

응웬 반 퉁 하이퐁 시장은 “유정복 시장님의 재임을 축하드리고 깊이 환대해 주심에 감사하다”고 표하며 “인천은 세계적인 수준의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고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등 괄목할 만한 투자 성과를 가진 경제자유구역(IFEZ)를 보유한 매우 성공적인 도시로 앞으로 인천의 선진화된 도시 모델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해 활발하게 교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는 인천을 소개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베트남에선 한류확산과 더불어 늘어난 한국어 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선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이퐁시와 함께 세종학당을 추가 설립하여 상호간의 우호를 더욱 공고히 하길 바라니 많은 관심을 부탁 한다”고 화답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0시)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